

2024. 3. 29.(금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

조직담당관	강경훈	2133-6720
조직기획팀장	백상훈	2133-6722
조직관리팀장	김수현	2133-6733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7쪽

### 서울시,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(안)… 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

- 오는 7월 시행될 ‘서울시 조직개편(안)’ 입법예고 거쳐 4.5.(금) 시의회 제출
- ‘동행·매력’ 정책 추진력 강화 및 인구구조 변화·사회문제 해결 위한 조직 보강
- 이민·국제교류 컨트롤타워 ‘글로벌도시정책관’, 고독·고립 문제 해결 ‘돌봄·고독정책관’ 신설
- 도시경쟁력 강화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, 편 시티 등 서울 대개조 위한 조직 신설

- 서울시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‘동행·매력특별시 서울’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·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.
- 이번 조직개편은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매력 충만한 도시로 만드는 동시에 ‘약자동행’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. 또 외국인·이민정책, 고독·고립 등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데 조직, 인력을 집중 보강했다.
- 아울러,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전체 조직과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부서 간 합리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 시정 핵심분야의 정책 실행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.

□ 조직개편(안)에는 ①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 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②전 계층의 고독·고립문제 해소 ③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④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·건강·주거·교통분야 조직 강화 ⑤정책수요 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.

□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<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(안)>을 발표하고, 3월 29일(금)~4월 2일(화)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(금)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

- 시의회 심의·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, 후속조치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'24년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.

<빈틈없는 인구정책 추진 위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생·이민정책 조직 신설>

□ 첫째,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'글로벌도시정책관'을 신설한다. 저출생,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외국인·이민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, '글로벌도시정책관'이 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·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계획이다.

- '외국인이민담당관'과 '다문화담당관'을 신설해 「외국인 유치 - 정착 - 다문화 · 사회통합」 모든 단계에 대한 외국인정책을 총괄, 조정한다.
-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를 '도시외교담당관'과 '국제협력담당관'으로 재편, '글로벌도시정책관'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.

-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분야별 (저출생·고령화·외국인) 전담 부서를 완비해 빈틈없는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▲초저출생 위기 극복- ‘저출생담당관’ 신설(여성가족실) ▲고령친화도시 구현- ‘돌봄·고독정책관’ 신설(복지실) ▲이민·다문화정책- ‘외국인이민담당관’, ‘다문화담당관’ 신설(글로벌도시정책관)이다.

<고독사·고립 해소 위한 ‘돌봄·고독정책관’, ‘고독대응과’ 신설>

- 둘째, 고독사 등 고독·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‘돌봄·고독정책관’을 신설한다.
- 복지실에 ‘돌봄·고독정책관’을 신설해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 고독·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. 모든 계층과 세대의 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.
- ‘돌봄·고독정책관’ 산하에 ‘고독대응과’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 안전관리,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·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 어르신복지과, 돌봄복지과, 1인가구지원과(이관, ←여성가족실)를 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.

※ 영국은 고독부(Ministry for Loneliness) 장관, 일본은 내각관방부에 고독·고립담당실을 신설하여 고독사와 같은 고독·고립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.

<용산입체도시과 도시활력과 등 서울 대개조 및 도시공간 혁신 견인할 조직 개편>

- 셋째,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‘매력특별시, 서울’로 만들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.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.
  
-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, 미래공간기획관 내에 ‘용산입체도시담당관’을 신설한다.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 '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.
  - 비온드 조닝을 최초로 구현할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핵심사업으로, 융복합 국제업무도시, 입체보행 녹지도시, 에너지 자립도시, 동행 감성도시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.
  
- 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‘편 시티 (Fun City), 서울’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‘도시활력담당관’을 신설한다.
  - 다양한 문화자원과 수변공원, 대관람차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연계해 매력도시 서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.
  
- 재난안전실에 도로계획·건설·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 ‘도로기획관’도 신설해 안전한 기반시설과 매력있는 보행공간 조성에 힘을 싣는다.
  - 이 밖에도, 재난안전실에 ‘보행환경개선과’를 신설해 ‘걷고 싶은 서울

만들기'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. 관광수요가 많으나 인프라가 노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 불편시설을 개선하고, 지역특색에 맞게 거리를 조성해 나간다.

- 또한,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('25.1.)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한다.
-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'세운활성화사업팀'과 '철도지하화팀'을 각각 신설한다.

<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 생활 밀접한 안전·건강·주거·교통분야 조직 보강>

- 넷째,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·건강·주거·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.
- '부실공사 ZERO 서울'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'건설기술정책관'을 신설한다.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, 건설 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.
- 각 실국에 산재된 건설안전 관리기능을 통합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, 주요 공정 하도급 금지 및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, 현장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등 '부실공사 제로 서울' 8개 추진과제를 총괄한다.

- 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하여 시민건강국에 ‘건강관리과’를 신설하고, ‘서울시 마약관리센터’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.
  - ‘건강관리과’를 신설해 금연, 대사증후군 관리, 산모·신생아·영유아 건강관리, 어르신 건강관리 등 다양한 시민 건강관리사업을 통합 추진한다.
  -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‘서울시 마약관리센터’를 설치함(’24.10.)에 따라, 이를 위한 핵심인력(센터장)을 보강한다.
  
- 주택실에 국장급 기구인 ‘주택정책관’을 신설하여 주택정책·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,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‘임대주택과’를 신설한다.
  
- 교통실에는 보행·자전거·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 ‘교통운영관’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.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‘기후동행카드팀’도 신설한다.

<청렴도 향상, 디지털 재난 대응…정책수요 반영해 조직 보강>

- 다섯째,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‘청렴담당관’을 신설,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국민권익위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.

- 디지털정책관을 ‘디지털도시국’으로 재편, ‘정보보안과’를 신설해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.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,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.
  
- 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,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.
  
-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“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 동안 ‘동행·매력특별시 서울’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”이라며, “저출생·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